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신뢰 매개효과 분석

최동주*, 이묘숙**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A Study on the Fear of Crime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Dong-Joo Choi*, Myo-Sook Lee**

Dept. of Foodservice Industry Jeonju University*, Woori home care center for elderly**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녀 55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7~8월 2달간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은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인신뢰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인신뢰, 생활만족도, 지역사회, 매개효과

Abstract A Study on the Fear of Crime and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fear of crime accounts for life satisfaction, and the interpersonal trust mediating between fear of crime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group of 557 adults above 20 years ol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survey was done from July 1st 2015 to August 31 2014.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ubjects who were women and had higher education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Second, fear of crim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ird, fear of crim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interpersonal trust. Fourth, interpersonal trus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Lastly, interpersonal trust acts as a mediator between fear of crime and life satisfac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s results is for policy making and it is discussed to promote a higher level of interpersonal trust and increa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for residents.

Key Words : fear of crime, interpersonal trust, life satisfaction, local community, mediated effect

Received 30 September 2016, Revised 2 Novem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Dong-Joo Choi
(Dept. of Foodservice Industry Jeonju University)
Email: newham@jj.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의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들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 또는 범죄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성식, 2000)[1].

국내외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범죄에 대한 불안은 쾌적해야 할 삶의 질을 갉아먹고,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강화하게 하며,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신뢰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통제역량을 저해하기 때문이다(Jackson & Gray, 2009)[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Stafford, Chandola, & Marmot, 2007)[3],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Hanslmaier, 2013)[4].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뿐 더러,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반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Wilson & Kelling, 1982)[5].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과 직결이 되면서 그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뢰·규범·네트워크 등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투명성 증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순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정운식, 2014)[6]. 실제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자본의 결핍이 범죄나 사회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김상원, 2012)[7].

사회자본은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규범(Coleman, 1988)[8], 일반적 호혜성(Putnam, 1993)[9], 그리고 연결망(Bourdieu 1982)[10]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신뢰이다(Lin, 2001)[11]. Fukuyama(1995)[12]는 사회자본이 특정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특정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신뢰와 사회자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신뢰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신뢰의 영역은 크게 대인신뢰와 조직신뢰로 나누어질 수 있다. 대인신뢰는 개인적으로 상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범위의 신뢰이며, 조직신뢰는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Zaheer, 1998)[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각 분야의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특히 사회자본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착목하여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신뢰만을 변수로 채택한 강민성(2014)[14]의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백은령, 2005)[15],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감(happiness)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이중섭, 2009)[16]. 이와 같은 용어들은 구체적이며 특정한 심리상태를 지칭하기보다는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생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는 물론, 사회복지차원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속변수라고 판단이 든다.

특히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인 대인신뢰의 역할을 찾아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는 안전생활만족과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안승남, 2015)[1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Stafford, Chandola, & Marmot, 2007)[3]. 또한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의 수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Wilson & Kelling, 1982)[5].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건전한 사회성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Garofalo, 1981)[18].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를 보면, 무질서한 시민의식에서 각종 범죄발생빈도는 높아지고 나아가 안전생활만족과 일상생활만족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안승남, 2015)[17].

2.2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신뢰의 관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현상 못지않게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나 생활을 위축시키고, 불신감을 조장하며, 각종 보안장치의 설치로 인한 경제비용의 부담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인섭·김지선, 1996)[19]. 반면, 대인신뢰는 사회행위를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주고받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를 유리하게 귀결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이나 감정적인 결속이 낮아지면서, 상호간에 경계와 불신이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면 사람 간의 신뢰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구성원 간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생활만족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일형, 2015)[20]. 이에 대한 실증결과는 사회안전, 사회안전망 또는 대형사고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동규·민연경(2015)[21]의 연구에서 재난안전 중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침몰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의 국정운영평가 즉,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김찬선(2014)[22]은 사회안전망은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범죄예방설계나 경찰치안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2.3 대인신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인신뢰와 생활만족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구한 결과는 흔치 않다. 그러나 Uslaner(2002)[23]는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구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더 행복한 전망을 가진

다고 보고했고, Helliwell(2007)[24]는 동료들 신뢰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하며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 Bjornskov(2006)[25]는 사회적 자본의 척도에 신뢰, 연결망적 행위, 호혜성 규범 등 세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중에서 사회적 신뢰 요소만이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우석(2009)[26]은 노인의 신뢰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에서 사적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공적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고, 강중수(2014)[27]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참여와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박영신·김의철(2008)[28]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Bjornskov, 2008; Yamamura et al., 2014)[25][29] 신뢰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신뢰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2.4 대인신뢰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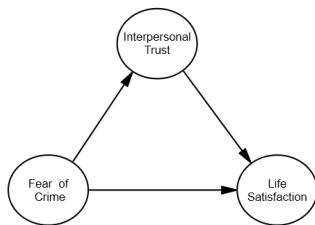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대인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만약 매개효과가 검증이 된다고 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대인신뢰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인신뢰를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생활만족도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를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7~8월 약 두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572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제거하고 총 55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분포도는 남성이 230명(41.3%) 여성이 327(58.7%)이다.

3.3 분석변수 및 측정도구

3.3.1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한 단서 및 상징에 의해 위협성을 인식 또는 지각함으로써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서적·행태적 반응”으로 정의한 성용은(2007)[30]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는 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에서 김성언(2003)[31]이 사용한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항목과 심수진·이희길(2009)[32]의 ‘사회조사 항목개발’에서 사용한 문항 그리고 장안석(2011)[33]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3.3.2 대인신뢰

매개변수로 사용된 대인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적으로 상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범위의 신뢰이며(Zaheer, 1998)[13], 개인과 신뢰대상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주관적 믿음이다(박희봉 외 2003)[34].

대인신뢰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유석춘 외(2002)[35]의 “사회자본과 신뢰”와 박희봉 외(2003)[34]의 “한국인의 신뢰수준 및 영향 요인”에서 사용한 사적신뢰 6개 항목(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일반사회동료)을 김미정(2010)[36]이 재구성한 대인신뢰의 7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개인의 삶에서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이며 기대에 대한 충족정도로 볼 수 있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Burr, 1970)[37].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 (1985)[38]가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통해서 제시한 Scal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윤명숙·이묘숙(2011)[39]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신뢰도 $\alpha=.862$).

3.4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검토 및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과약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PSS 21.0을 이용해서 변수의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통제변수(성별, 학력)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매개변수에 대인신뢰 그리고 종속변수에는 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대인신뢰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577명이다. 대상자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30명(41.3%), 여성이 327명(58.7%)이고, 나이의 분포는 20대 129(23.2%), 30대 101명(18.1%), 40대 142명(25.5%), 50대 128명(23.0%) 그리고 60대 이상이 57명(10.2%)이다. 대상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35명(6.2%), 고졸 130명(23.3%), 전문대졸 또는 대졸이 325명(58.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 대학원졸 이상이 59명(10.6%) 그리고 기타가 8명(1.4%)를 차지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ies		n	%
Sex	Male	230	41.3
	Female	327	58.7
Age	Age 20-29	129	23.2
	Age 30-39	101	18.1
	Age 40-49	142	25.5
	Age 50-59	128	23.0
	Age 60 above	57	10.2
Education	Graduated middle school	35	6.2
	Graduated high school	130	23.3
	Graduated college	325	58.3
	Graduate school above	59	10.6
	others	8	1.4
Total		577	100.0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모형은 지역사회 주민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인신뢰 그리고 생활만족도 세 개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인신뢰, 생활만

족도 모두 단일차원의 측정도구이므로 8항으로 구성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7문항으로 구성된 대인신뢰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3개의 측정변수로, 대인신뢰는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을 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5개로 구성된 문항을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측정을 통해 각 변수들의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측정해보았는데, <Table 2>와 같이 West 외(1995)[40]가 제시한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아야 한다는 정규분포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 정상성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Main variables descriptiv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FOC	fear11	3.763	.8359	-.318	-.585
	fear2	3.940	.8059	-.423	-.499
	fear3	3.911	.8378	-.459	-.437
IT	trust1	3.231	.601	-.142	.590
	trust2	3.365	.622	-.384	1.294
LS	satis1	3.212	.947	-.243	-.268
	satis2	3.002	.980	.077	-.388
	satis3	2.822	1.015	.103	-.458
	satis4	3.031	1.011	-.344	-.300
	satis5	2.466	1.056	.260	-.652

FOC: Fear of Crime, IT: Interpersonal Trust, LS: Life Satisfaction

4.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103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신뢰 간에는 .232, 그리고 대인신뢰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25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964 이고 VIF가 1.037로 공차한계와 VIF가 모두 1에 가까워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태균 · 김경휘, 2013)[41].

상관관계 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 아니라 가설검증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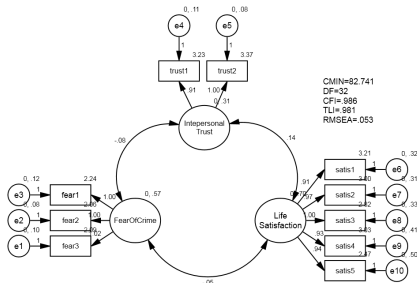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Variable	Fear of Crime	Interpersonal Trust	Life Satisfaction	α
Fear of Crime	1			.939
Interpersonal Trust	.232**	1		.806
Life Satisfaction	.103*	.256**	1	.893

*p<.05, **p<.01

4.4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추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측정모형이 구조모형을 구성하기에 적합한지를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인신뢰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하나 이상의 계수가 매우 큰 오차를 보이거나,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nce)과 같은 부(-)적 해가 있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추정치가 있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pm .90$ 이상)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Fig. 2] Measurement model

<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Estimate		S.E.	C.R.
		B	β		
FOC	fear1	.979	.907***	.027	35.603
	fear2	.978	.940***	.025	38.852
	fear3	1.000	.924***		
IT	trust1	.912	.840***	.095	9.551
	trust2	1.000	.891***		
LS	satis1	.906	.799***	.043	21.018
	satis2	.969	.825***	.044	21.932
	satis3	1.000	.822***		
	satis4	.933	.771***	.047	20.656
	satis5	.941	.744***	.049	19.155

$\chi^2=83.175$, $df=32$, $CFI=.986$, $TLI=.980$, $RMSEA=.054$, *p<.05, **p<.01, ***p<.001

그 결과 가정에 위배되는 추정치는 발견되지 않아 모든 가정을 충족시켰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3.175(32)$, $p=.000$ 으로 χ^2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통계량은 사례 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 $CFI=.986$, $TLI=.980$, $RMSEA=.054$ 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2]와 <Table 4>와 같다.

4.5. 제안모델(가설모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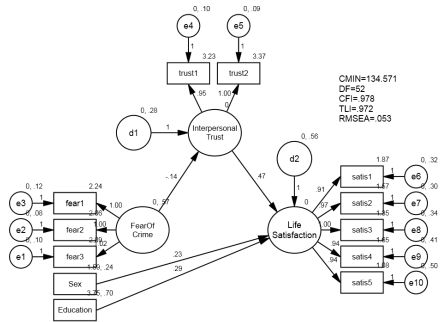
모든 변수 간의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제안모델을 성별과 학력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chi^2=133.499$, $df=51$, $CFI=.978$, $TLI=.971$, $RMSEA=.054$ 로 나타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C.R.=.912$ 로 $p=.05$ 통계적으로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대인신뢰 경로는 $C.R.=4.169$ *** 그리고 대인신뢰에서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는 $C.R.=5.998$ ***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인 성별에서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C.R.=3.354$ 로 나타났고 학력에서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C.R.=7.107$ 로 나타났다.

4.6 대안(경쟁)모델 분석

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CR=-2.228$ 로 $p>.05$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것이 대인신뢰의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CR=-.905$ 로 감소하였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범죄의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대인신뢰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대인신뢰의 완전매개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 1) TLI와 CFI는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42].
- 2) RMSEA는 그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이면 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43].

는 연구모델인 부분매개모형[Fig. 1]과 대안모델인 완전 매개모형 [Fig. 3]이 내포모델이므로 경쟁모델 원리에 따른 경쟁모형 비교를 통해 제안모형과 경쟁(대안)모형의 $\chi^2(df)$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안모형과 경쟁(대안)모형의 χ^2 차이는 자유도 차이=1($p=0.3634$)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Alternative model(Competing model)

이러한 결과는 모형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모형 간 차이가 없을 때(영가설을 채택)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델 지지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Table 5> Compare hypothesized model & alternative model

Model	$\chi^2(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p
Hypothesized Model	133.325(52)	.978	.971	.054		
Competing Model	133.499(51)	.978	.972	.053	0.826(1)	0.3634

*p<.05

4.7 구조모형 분석

경쟁모델을 통해 선택된 최종모델(완전매개모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chi^2=133.499$, $df=51$, $CFI=.978$, $TLI=.972$, $RMSEA=.053$ 으로 나타나, 필요한 요구 적합도를 충족시켰으며 경로계수는 [Fig. 3]와 <Table 6>과 같다.

최종구조모델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대인신뢰에 이르는 경로는 $C.R=4.223^{***}$, 대인신뢰에서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C.R=6.305^{***}$,

선택된 모형의 모든 경로가 결과변수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제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과 학력도 생활만족도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lternative model path analysis

Path	Estimate		S.E.	C.R.
	B	β		
Fear of Crime → Intepersonal Trust	.140	.199	.033	4.223***
Intepersonal Trust → Satisfaction	.465	.302	.074	6.305***
Sex → Satisfaction	.235	.138	.066	4.109***
Education → Satisfaction	.294	.295	.040	4.741***

$\chi^2=133.499$, $df=51$, $CFI=.978$, $TLI=.972$, $RMSEA=.053$, $***p<.001$, $**p<.01$

4.8 매개 효과 분석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 효과검증이 가질 수 있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Shout and Bolger, 2002)[44].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Table 7>과 같다.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는 총효과가 .065, 직접효과가 .000, 그리고 간접효과가 .065로 나타나 대인신뢰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33~.110**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신뢰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에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7> Effects decomposition t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Confidence interval (p-value)
Fear of Crime → Satisfaction	.065	.000	.065	.033~.110(.009**)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일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은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서 하위단계에 속하는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최상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나 삶의 질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숙자(2016)[45]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과 연결 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인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이 의미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대인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형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고도화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안과 대처능력이 국정운영평가나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지역 내에서 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 안전교육, 경찰치안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되고, 정책 신뢰, 서비스관리 신뢰, 업무성과 신뢰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인신뢰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즉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웃, 직장 동료, 집원,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등 주변인들에 대해 신

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라는 예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를 통해서 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는 독립변수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나 나타났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인신뢰 변수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가지고 생활만족도 등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 설문자들은 개인적인 건강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본 연구에서는 변별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에 의존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횡단적 자료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종단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각 변수별 하위차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회자본 차원에서 신뢰를 측정도구로 사용할 경우에 어떤 측정도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S. Lee, "An Integrating Study for Considering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across the Types of Youth Cyber Crim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 11-120, 2008.
- [2] Dolan, P. & Peasgood, T., "Estim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7, pp. 121-132, 2007.
- [3] Stafford, M., Chandola, T. & Marmot, M.,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7, pp. 2076-2081, 2007.
- [4] Hansmaier, M., “Crime, fear and subjective well-being: How victimization and street crime affect fear and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10, No. 5, pp. 515-533, 2013.
- [5] Wilson, J. Q., & Kelling, G. L.,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The Atlantic Monthly*, Vol. 249, No. 3, pp. 29-38, 1982.
- [6] Y. S. Choung,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4.
- [7] S. W. Kim, “Social Capital and Crime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iolent Cri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Security*, Vol. 9, No. 1, pp. 1-25, 2012.
- [8]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S95-S120, 1988.
- [9]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10] Bourdieu, P., “Les rites d’institution”,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Vol. 43, pp. 58-63, 1982.
- [11] Lin, N.,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Civic Engagement or Trust?”, *Hong Kong Journal of Sociology*, Vol. 2, pp. 1-38, 2001.
- [12] Fukuyama, France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 [13] Zaheer, A., McEvily, B., & Perrone, V., “Does trust matter? Exploring the effects of inter 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trust 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Science*, 9, pp. 141-159. 1998.
- [14] M. S. Ka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ypes of trust on happiness : focused on social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14.
- [15] E. R. Paik,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h. 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3.
- [16]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Vol. 16, No. 1, pp. 79-105, 2009.
- [17] S. N. Ahn,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and Citizens’ Fear of Crime and Quality of Life in Seoul”, Ph. 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15.
- [18] Garofalo, J., “The Fear of Crime : Causes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72, No. 2, 839-853, 1981.
- [19] I. S. Choi & J. S. Kim, “Study on the Public Fear of Crime in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Vol. 9, 1-201. 1996.
- [20] Y. H. Cho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Fear of Crim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 24, No. 3, pp. 1-27, 2015.
- [21] D. K. Lee & Y. K. Min, “After Ferry Sewol Disaster, How does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Affect Government Trust? - Centers on the Omnibus Survey of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Conducted by Korean Research”. *Crisisonomy*, Vol. 11, No. 3, pp. 19-38, 2015.
- [22] C.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 Network and Security Life Satisfaction in Community Residents: Sca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 6, pp. 108-118, 2014.
- [23] Uslaner, E. M.,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24] Helliwell, J. F.,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1, No. 3. pp. 455-496, 2007.
- [25] Bjornskov, C.,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No. 1, pp. 22-40, 2006.
- [26] S. W. Y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focused on Seoul Ci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 2009.
- [27] J. S. Ka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875-882, 2014.
- [28] Y. S. Park & U. C. Kim,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n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social support from spouse,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4, No. 4, pp. 71-101, 2008.
- [29] Yamamura, E., Tsutsui, Y., Yamane, C., Yamane, S., & Powdthavee, N., “Trust and Happiness: Comparative Study Before an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23, No. 3, pp. 919-935, 2014.
- [30] Y. E. Seong, “A Study on Relations of the Recognition on Public Peace Environment and Fear of Crime : Focused on the Seoul Area”. Ph. 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7.
- [31] S. E. Kim, “Rearranging Korean Police Functions : Community Policing and Fear of Crim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3-326, 2003.
- [32] S. J. Sim · & H. K. Lee, *The social survey item development*,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09.
- [33] A. S. Jang, “A Study Effect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Fear of Crime: A Study Effect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Fear of Crime: focusing on contextual and moderating effect”, Ph. 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1.
- [34] H. B. Park, H. C. Lee, D. W. Kim, C. S. Kim & B. T. Park, “The Levels and Determinants of the Koreans’ Trust: Interpersonal, Associational, and Mass Media Trust affected b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 12, No. 3, pp. 199-263, 2003.
- [35] S. C. Lew, M. H. Chang & Y. Bae, “Good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Trust: Korea, Japan, Denmark, and Sweden ”. *East and West Studies*, Vol. 14, No. 1, pp. 101-135, 2002.
- [36] M. J. Kim, “Influence to legal consciousness by social trust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highschool students residing in the capital spher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37] Burr, W. R., & Hultisch. D. F. A., “Multivariate anali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Vol. 25, No. 1, pp. 41-47, 1970.
- [38]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1985.
- [39] M. S. Y &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f Elderly Wom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6, No. 3-1, pp. 89-115, 2011.
- [40]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 [41] T. K. Yoo & K. H. Kim, “Statistics for social welfare research” *Knowledge community*, 2013.
- [42] Bentler, P. M.,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1990.
- [43]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and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 - 162. Beverly Hills, CA: Sage, 1993.
- [44] Shrout, P. E., & Bolger, N.,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 7, No. 4, pp. 422-445, 2002.
- [45] Suk-Ja Yoon, “Impact of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oblem Drink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11-17, 2016.

최 동 주(Choi, Dong Joo)



- 1999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99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호스피탈리티 인적자원 개발

· E-Mail : newham@jj.ac.kr

이 묘 숙(Lee, Myo Sook)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조교수 및 강의 전담교수
- 2016년 6월 ~ 현재 : 우리재가복지센터 사무국장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상담, 중독

· E-Mail : rabbitball@daum.net